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 모여라

전북불교네트워크, 8월 14일 문화유산 도보순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와 더불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보순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북불교네크워크(공동대표 유지원)는 8월 14일부터 1주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유산 도보순례'를 실시한다.

(재)아름다운동행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도보순례는 여러 이유로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대학생과 1대1 멘토 · 멘티를 맺어 진행된다.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사 등 지역 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중심으로 청년멘토와 함께 걸으며 청소년들의 심신을 달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한여름의 폭염을 우려해 도보순례와 차량이동을 적절히 조율해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별, 장소별로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 줄 선지식과 스승을 초청해 상담과 치유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불교네트워크 관계자는 "단순한 순례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평화의 삶을 위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놀이 개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1주간 동참할 청소년들의 안전과 심신 안정을 최대한 배려해 일정을 준비 중이며, 숙박은 순례코스 내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모집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또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대학생이나 청년멘토도 함께 모집 중이다.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는 "청소년 포교라는 개념은 단순히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에서 탈피해 불교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이라 적은 수로 시작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잘 평가해 더욱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63)271-3555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싯달타 어린이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50명 대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펼쳐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7월 26~28일 경내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싯달타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가 어린이들이 각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꿈의 길잡이가 되어줄 스님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불 · 발우공양을 체험하며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명신 스님과 대응 스님의 지도 아래 연꽃길 명상 체험, 물 명상, 민요 배우기, 만다라 그리기, 캠프파이어, 붓글씨 편지쓰기, 보물찾기, 칭찬샤워,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교와 학원으로 이어지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린이 템플스테이는 지역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다은(신동초4) 어린이는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절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명신 스님은 "송광사가 지니고 있는 오래되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보고의 숨결, 일본서 느껴 즐거워요!"

완도 신흥사, 섬 아이들 위한 장보고 유적답사
올해로 5회째, 新 포교프로그램으로 호응 높아



완도 신흥사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를 통해 유적답사를 떠난 아이들이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라시대 청해진을 설치해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해상왕 장보고(張保　, ?~846). '21세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역사적 인물'로 수많은 경제인들이 꼽는 장보고의 일본 유적을 돌아보는 어린이 답사가 펼쳐져 화제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25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장보고대사와 일본'이라는 주제 아래 장보고 유적지와 백제불교의 숨결이 살아있는 일본 유적답사를 실시했다. 답사에는 청해진이 자리해 장보고의 후예라 일컫는 완도 아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답사는 첫날 완도 전통사찰인 신흥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둘째 날 고대 한국과 일본의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는 뱃길, 셋째 날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및 백제불교의 보고인 법륭사 · 청수사 · 장보고 대사의 옛 숨결이 살아있는 연력사 탐방, 마지막 날 오사카성 및 오사카 시내관광 등이 진행됐다.

해상왕 장보고는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활약했던 무역상이자 강력한 불교계 후원자로, 당나라로 유입되는 무역상, 유학생들과 함께 신라방(新羅坊)과 신라소, 그리고 불교사찰인 법화원을 후원한 동북아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일본 천태종의 중창조인 엔닌 스님은 이곳 법화원에 머물면서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귀국을 보살펴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엔닌 스님

지역 문화사업 연계해
5박6일 연력사 등 탐방
"백제불교 · 장보고 가치
배울 수 있는 기회 돼"

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와 더불어 세계 3대 동방 여행기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장보고대사를 재물 또는 복(福)을 가져다주는 신(神)으로 추앙하고 있다.

답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장보고가 누볐던 성지를 순례하며 단순히 책을 통해 역사 속 위인으로만 알았던 장보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나린(초등6) 양은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장보고대사가 우리나라 사람이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경험하기 어려운 순례 덕분에 아름다운 백제불교와 장보고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은 "장보고의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정신을 알고, 올바른 법을 찾으려는 수행자의 삶을 배울 수 가 있다"며 "통일신라불교의 가장 위대한 후원자였던 장보고대사의 삶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5회째 진행된 유적답사는 신흥사의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려 어린이 행사를 진행하는 신흥사는 해외유적답사와 지역 문화사업을 연계해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0일 남겨둔 선운사 지장천일기도

고창 선운사, 7월 24일
900일 기도 회향



고창 선운사 천일지장기도가 900일 회향을 하며 최종 회향까지 100일만을 남겨뒀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24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천일지장기도 900일 회향법회 및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등 사내 대중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전날인 23일 지장보궁에서 지장경 독경, 3천배 등 철야정진을 마쳤다.

환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며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가 불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천도재를 봉행한 데 이어 도솔천 극락교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삼장지장기도 성지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는 보물 279호 금동지장보살이 봉안된 지장보궁에서 2014년부터 수행과 복지, 문화공동체 건립을 발원하는 지장천일기도를 봉행해오고 있다. 3년여에 걸친 지장천일기도는 오는 11월 9일 회향한다.

한편 선운사는 앞서 21일 대웅보전에서 남곡당 윤명대선사 3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원사 원로 재곤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평소 수행과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가졌던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와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랍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싱글男女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8월 13~15일

미혼 싱글남녀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8월 13일부터 2박3일간 선남선녀들의 만남을 주제로 '제1차 싱글만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 템플스테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가족해체 등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만남과 결혼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40대의 미혼남녀 10쌍이 참여 가능하며, 결혼의 인연까지 이어지는 커플은 화엄사 주지스님의 주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어색한 미혼 남녀가 만남의 인연을 맺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 소원등 만들기 및 탑돌이, 이심전심 톡톡, 숲길 걷기, 지리산 계곡 휴식, 스님과의 차담 등이 진행되며, 예불, 운력, 108배 등 불교문화프로그램도 더해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